

## 성령의 열매(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요한복음 16 장 16-24 절

### 1. 기쁨에 대하여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로 언급되는 기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각 열매의 정의와 반대말 그리고 모조품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쁨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쁨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반짝이게 하고, 마음을 흥분하게 합니까?**

**무엇이 미소를 짓거나 웃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게 합니까?**

### 2. 하나님의 기쁨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발견됩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기쁨과 피조물의 기쁨**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일로 인해 기뻐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며 반복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좋았더라"는 표현은 "기뻐하셨다"고 읽어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언 8 장의 말씀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27 절을 읽겠습니다.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언 8 장 30 절과 31 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은 스바냐 3 장 17 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스바냐 3 장 17 절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요약해볼까요?

###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기쁨은 크게 관계적 차원과 사역의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관계적 차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도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결국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로 성령의 열매로 가장 먼저 사랑이 언급되고, 이어서 기쁨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은 사역의 차원**에서도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즉 **창조와 구원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고, 거기서 큰 의미를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 3. 기쁨의 반대말

그렇다면 **사람의 기쁨은 어떤 차원에서 봐야 할까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쁨은 많은 경우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기쁨의 반대말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옳지 않습니다.**

2015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란 작품이 있죠.

한 소녀의 머릿속에 있는 다섯 가지 감정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을 의인화해서,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변하는지 재미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이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기쁨과 슬픔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슬픔은 우리가 건강한 정신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들**입니다. **기쁨만 있고 슬픔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실없이 계속 웃고 다닐 겁니다. 이상하죠. **반대로 기쁨은 없고 슬픔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습니까?** 이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지루함(boredo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루함이 기쁨의 반대일까요?

**지루함이란 무관심과 의미없음 그리고 소망없음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루함은 주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 삶에 대한 의미없음으로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인생 전체를 소망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정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쁨과 비교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창조와 구원이라는 사역에서 오는 기쁨을 소중하게 누리셨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관심의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쁨을 의미없음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기쁨을 소망이 없는 자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왜 기쁨의 반대말이 지루함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지루함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멍 때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고, 물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고, 꽃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고,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멍을 때리다가 문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휴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반대말이란 당연히 이런 지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멍

###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때림은 아주 바람직한 지루함입니다. 문제는 무관심에서 의미없음으로 그리고 소망없음으로 치닫는 지루함이란 말입니다. 이런 인생은 결코 건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 4. 기쁨의 모조품

그렇다면 기쁨의 모조품은 무엇일까요?

기쁨의 반대말이 지루함, 즉 무관심에서 의미없음 그리고 소망없음으로 악화되는 지루함이라면, 기쁨의 위조상태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이를 위해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했고, 자기 백성들을 기뻐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관계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 그러니까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이끄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 장에 보면, 다윗이 왕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소홀히 여겼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기쁨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밋세바를 강제로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이런 범죄를 행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추려본다면, “빨리빨리” 때문이라고

###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자!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기뻐할 겁니다. 좋았을 겁니다. 뭔가 행복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건강한 기쁨이 아닙니다. 위조된 기쁨**이란 말이죠. 바람직하지 못한 기쁨입니다.

이런 온당치 못한 기쁨이 왜 생겨납니까? **“빨리빨리”**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자연스레 다른 것에서 엉뚱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음에서 작은 죄의 불꽃이 발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빨리빨리”**라는 기름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 순간 나약한 인간은 건강한 기쁨 대신 원초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즉, 지금 나는 지루하고,**

**내가 하는 일과 주변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별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때 다른 즐거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서 빨리빨리 그 즐거움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쁨의 반대말을 지루함이라고 말하게 되고, 기쁨의 모조품이 “빨리빨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 5.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까

###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 장 16 절에서 24 절**에 제시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16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란 말씀이고, 두번째 “**조금 있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고통스러워 할 것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의 고통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의 특징을 22 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기쁨**이란 말입니다.

지루함을 극복하겠다고 빨리빨리 일시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뿐더러, 영원한 기쁨**입니다.

### 3. 기쁨 - 지루함을 건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은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일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십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무관심과 의미없음과 소망없음으로 끌고 가는 지루함을 극복하고,

가짜 기쁨을 빨리빨리 맛보라는 사탄의 제안을 뿌리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